



밴쿠버 동계올림픽 D-2

‘지구인의 겨울축제’ 13일 개막

84개국 2,600여명 17일간 열전 돌입

한국, 금메달 5개 ‘종합 10위권’ 목표

지구촌의 겨울 대축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관으로 21회째를 맞은 동계올림픽은 13일 오전 11시(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 BC플레이스 스타디움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열고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캐나다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은 1976년 몬트리올 하계올림픽과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에 이어 세번째다.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에는 전 세계 84개국에서 2천600여명이 참가해 15개 기본종목에서 총 86개의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룬다.

빙상 종목은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컬링이 열릴

에서는 알파인스키와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스노보드, 스키점프, 프리스타일 스키, 노르딕 복합 등이다.

또 봅슬레이와 스퀘레톤, 루지 등 썰매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다툰다.

2003년 7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강도도 평창에 빼어난 역전패를 안기며 개최권을 획득했던 밴쿠버는 총 17억달러를 투자해 빙상장과 봅슬레이, 크로스컨트리 코스 등 7개 경기장을 신설했고 알파인스키 슬로프 등 4개 경기장을 새로 고쳤다.

이번 대회 슬로건은 ‘뜨거운 가슴으로(With Glowing Hearts)’로 정했으며 마스코트는 지역 원주민 신화 속의 등장인물과 동물을 형상화해 ‘스미(Sumi)’ ‘콰치(Qu-

atchi)’ ‘미가(Miga)’ 세 가지를 만들었다.

올림픽 성화는 캐나다 내에서 역대 최장 거리 봉송 중이다. 지난 해 10월 그리스 올림픽 피아의 헤라 신전에서 채화된 성화는 106일 동안 1만2천여명의 주자들에게 의해 북극권을 포함해 캐나다 전역 4만5천km를 달린 뒤 개막식 때 BC플레이스 스타디움에 도착해 17일간 ‘눈과 얼음의 축제’를 밝힐 예정이다.

선수과 임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 83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한국은 금메달 5개 이상을 획득해 2회 연속 종합 10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전통적으로 메달밭인 쇼트트랙 뿐 아니라 ‘피겨퀸’ 김연아(20·고려대)가 출전하는 피겨스케이팅과 이규혁(서울시청)과 이강석(의정부시청)이 속력을 다투는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 획득 가능성이 아주 높아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다.

또한 봅슬레이와 스퀘레톤, 루지 등 썰매 3종목에도 전부 출전하고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 스키에서도 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연습도 실전같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10일 스피드스케이팅 경기가 열리는 리치몬드 올림픽 오벌에서 국가대표 팀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신동’ 백승호

FC 바르셀로나 진출

‘축구 신동’으로 화제를 모았던 공격수 기대주 백승호(13·수원 매탄중)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강호 FC 바르셀로나의 러브콜을 받았다.



백승호는 바르셀로나 13세 이하(U-13) 유소년팀에 합류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오는 16일 스페인으로 출국한다.

지난해 12월 중순 스페인에서 개최된 한국-카탈루냐 14세 이하 대회에 참가했던 백승호는 이 경기를 지켜본 알베르트 부이츠 바르셀로나 U-13 유소년팀 감독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줬고 구단의 테스트를 통과해 초청장을 받았다.

히딩크 적장으로 변신?

나이지리아 감독실 ‘술술’

한국 축구팀 월드컵 4강으로 이끈 거스 히딩크 러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본선에서는 적장으로 한국과 만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축구 전문 인터넷 사이트 ‘킵오프 나이지리아닷컴’은 “히딩크의 대리인인 세스 판노이벤하이겐이 ‘히딩크가 나이지리아 감독을 맡기 위해 연봉 삭감까지 고려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 축구협회의 승인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10일 보도했다.

판노이벤하이겐은 “러시아와 계약이 7월 15일에 끝나는 히딩크는 절대 먼저 계약을 깨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일 나이지리아 감독 제의가 온다면 러시아축구협회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피겨퀸’ 김연아 소득도 1위

작년 800만달러 벌어 올림픽 출전 선수중 가장 높아

피겨퀸 김연아(20·고려대)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 중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0일자 인터넷판에서 김연아는 작년엔 800만달러에 가까운 수

입을 올려 미국의 스노보드 스타 손 화이트와 함께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 소득 랭킹 공동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김연아의 소득은 2009년 한해 동안 상금과 후원금, 라이선싱 수입, 보너스를 합산했

다고 포브스는 덧붙였다. 김연아는 작년 세계선수권대회, 그랑프리 파이널, 4대륙 대회에서 우승하며 15만달러를,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나이키, 삼성전자 등 후원사부터 750만달러를 받았다.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의 수염복 모델로 나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스키스타 린제이 본(미국)이 300만달러, 2006년 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금메달리스트 테드 라이제티(미국)가 200만달러를 벌며 각각 3.4위를 차지했다.

“후회없는 경기...2회 연속 톱10 진입” 한국 선수단 입춘식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2회 연속 ‘톱10’ 진입을 목표로 세운 한국 선수단이 선수촌 입춘식을 치렀다.

한국 선수단은 10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 선수촌 내 국가 광장에서 박성인 선수단을 포함한 선수와 임원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입춘식 행사를 치르고 본격적인 메달 사냥의 시동을 걸었다.

올림픽 깃발 게양으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캐나다 원주민 복장으로 차려입은 환영

단의 타악기 축하 연주에 이어 태극기 게양에 이르면서 절정을 맞았다.

입춘식에는 강광배와 김동현 등 봅슬레이 선수단과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종목 선수들이 참가했고, 이규혁과 이강석 등 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 종목 선수들은 오전 훈련 때문에 빠졌다.

선수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음악에 맞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춤도 추고 사진도 찍으면서 올림픽 분위기를 만끽했다. /연합뉴스

박성인 선수단장은 “모두 느끼는 대로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선수들의 자세와 분위기가 아주 좋다”라며 “후회 없는 경기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톱10’ 진입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김동현(봅슬레이)도 “동계올림픽 무대에 섰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고 신기하다”라며 “대회 기간에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귀국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연합뉴스

“신안 프로바둑팀 감독 맡아달라”

郡, 이상훈 7단에 제의

‘2009 KB 한국 바둑리그’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신안 태평 천일염 팀과 신안군이 2010년 시즌을 위해 신안 비금 출신의 이상훈 7단에 감독직을 제의하기로 했다.

신안군은 10일 “지역 출신의 이상훈 7단을 감독으로, 이세돌 9단을 주장으로 영입해 팀 컬러를 더욱 공고히 하는 등 팀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7단은 2000년 신인왕전과 신에 프로 10급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이세돌 9단의 형으로 더 각인돼 있으며 이번 신안군의 제의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그는 일찍부터 이세돌의 잠재성을 알고 뒤에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낸 젊은 공신으로 2002년 바둑도장을 개원했으며, 최근에는 이세돌 바둑도장으로 간판을 바꾸기까지 했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11일(목)

▲KBSN 제7회 전국총체 1.2학년 대학축구 결승전(10:20·KBS n스포츠)

▲09/10 NBA<LA에릭스> 유타(11:00·SBS스포츠)

▲09/10 영일 대학장사씨름 최강전 Day-4(13:00·MBC ESPN)

▲2010 동아시아 여자축구(일본:대만)(15:00·MBC ESPN·KBS n스포츠)

▲09/10 여자프로농구(우리은행:삼성생명)(16:50·SBS스포츠)

▲09/10 프로농구(동부:KT)(18:50·SBS스포츠) <전자랜드:KCC>(18:50·MBC ESPN)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단 한변이수강으로 내 인생이 성공한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주명리학·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자나은 과거 여정이나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능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방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낮 놓고 가자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관? 우주의 천시를 풀이한 귀곡사주 사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복을 하고 도망갔다 하여 부처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부합니다.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가산전화
조선대학교	관상학 초급	32부터 매주 화요일(15주)	(주)14-17시 (화)19-22시	150,000원	230-7700-3
평생교육원	관상학 심화	35부터 매주 금요일(15주)	(화)19-22시		
동강대학교	시주명리학 초급	310부터 매주 수요일(15주)	(화)19-21시	100,000원	520-2516
평생교육원	시주명리학 심화	311부터 매주 목요일(15주)	(화)19-21시		

등록안내 조선대 정지등록 2.1 ~ 2.19 까지
동강대 정지등록 1.25 ~ 2.27 까지

등록방법 해강기관 직접방문이나 전화등록 후 공용기판 입금

장학특전 65세 이상 30% 감면 등(각 학교 홈페이지 참조)

교육전담강사 소석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시주·관상 개인교습 실시!

문의: 각 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1-644-7232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

농촌, 과수원·농장에도~ 하우스에도~ 마트·시장에서 배송할때도~ 창고에도~

농림부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연 3% (1년 기차 5년 균등 분할 상환)

안전한 운송수단을 원하신다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라 전동운반차로 바꾸세요!

무공해 친환경 전기에너지저장 사용합니다

- 배 전기로 약 5,000원 정도도 부담이 거의 없다.
- 최신식 배터리로 사용되어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A/S

- 부속의 4시간을 일일적인 A/S가 가능합니다.

장기적라 농업용자를 통한 초기 구매부담 최소화

- 판매가의 90% 상거래자용자, 1년 기차 5년 상환, 연리 3%
- 즉전시 40%공평(1차재약 200kg)

일반 유류 운반차 유류비용으로 한라 전동 운반차 지급 가능

민중문화사업으로 반영하는 민의선용 **한라셀스텍(주)** TEL 062) 956-8823
061) 852-8896
HALLA Welttech Corp. 문의 H-P 010-9468-3282

해령법률경매

T:062)430-7117 H.P:011-629-0827 김법정 위치:법원정문앞

대표:성봉규 (법원정문앞 16-07-29)
· 전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동 15-1번지 1층
· 전 한국은행 본점 1층
· 전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번지 1층
· 전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번지 1층
· 전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번지 1층

지역	소재지	면적(㎡)	경매가	최저가	비고
광주	동산구	18554	1억1천	9천	면적 200㎡
	서구	18554	1억1천	9천	면적 200㎡
	동산구	18554	1억1천	9천	면적 200㎡
	서구	18554	1억1천	9천	면적 200㎡